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상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총력 기울여!! 예비비 56억 긴급 지원, 열감시카메라, 마스크, 소독 등 예방철저 이철우 도지사, 포항의료원 음압병상, 선별진료소 방문 현장 대응 당부 경북의사회 함께 현장 찾아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2만개 전달 경북도와 모든 시·군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보건정책과	
② 이철우 도지사, CV 대책 관광현장의 목소리 귀기울여 6일 경주황리단길 현장소통, 관광업계 종사자 현장간담회 가져 주요 관광지 손세정제 배치 등 방역 최대 노력.. 관광청정지역 유지 지역 어려움.. 지방 한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중앙정부 건의 ※ 2. 6일(목) 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③ 경북도, '전국체전 새로운 100년의 출발' 신호탄 쏘대 행정부지사 준비상황 보고회 주재, 56개 실·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과학·문화를 융합한 경북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체전준비에 전 행정력 집중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모색	전국체전 기획단	
④ 이철우 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현장 직접 챙겨 6일 포항의료원을 시작으로 경주, 구미, 문경, 경산 등 5개시군 현장점검 의료, 경제, 교통, 교육현장, 관광업계 방역현장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자치행정과	
⑤ 「경북행복경제정책회의」 출범.. 첫주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경북도 주도 대경연, 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 구성, 4개 협력기관 참여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매월 정례회의 개최 6일 첫 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한 비상경제대책 논의	일자리경제 노동과	
⑥ 이철우 도지사, 동부청사에서 간부회의 가져 환동해지역본부 방문 현안사항 청취·직원 격려 동해안전략 및 해양수산분야 신규시책 추진 및 국비확보 노력 당부	총무민원실	
⑦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본격 추진 막을라 스마트산단 사업단장에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취임 스마트 산단을 넘어 지역 산단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과학기술 정책과	
⑧ 경북도, 중소기업 수출에 새바람 일으킨다... 2020 새바람통상전략 발표, 수출 400억 달러 목표 수출유관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 및 통상정책 설명회 병행	외교통상과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⑨ 경북도,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한다! 6일 도청에서 2020년 경북도 산림정책회의 개최, 산림부서장 등 50여명 참석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복지 등, 금년도 3,260억원 투입	산림자원과	
⑩ 경북도, 지방재정 전략회의 통해 경기활성화 모색 신속집행, 신규국비 발굴 등 도·시군 합동 토론 등 회의 개최	예산담당관	
⑪ 경북소방본부,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도내 행사장 안전사고 신속대응	소방본부	
⑫ 경북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 10개 강좌,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독서문화진흥 기반 마련 2월 11일까지 접수, 이메일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경북도서관	
⑬ 경북농업기술원 구미시 장미원 조성 및 녹화사업에 힘 보태 구미화훼연구소·구미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화훼산업 발전 상생의 길 모색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과 장	김 영 길			
	【20. 2. 6(목)】		작 성 자	팀 장	김남주	주무관	김정미
			연 락 처	054-880-3783			

경상북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총력 기울여!!

- 예비비 56억 긴급 지원, 열감시카메라, 마스크, 소독 등 예방철저 -
- 이철우 도지사, 포항의료원 음압병상, 선별진료소 방문 현장 대응 당부 -
- 경북의사회 함께 현장 찾아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2만개 전달 -
- 경북도와 모든 시·군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

경북도는 지난 연말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과 국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도내 환자발생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예비비 등 56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열감지 화상 카메라 85대를 추가 확보해 총 136개소에 설치했다.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물품(마스크, 손세정제, 개인보호복 등) 구입,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과 협력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도내 2개 의료기관에 7실의 음압병상을 지정, 이 중 4실의 음압병상이 포항의료원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음압병상이란? 병실 안팎의 기압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특수병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예방, 각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6일 포항의료원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음압병상 시설을 둘러보고, 격리병상 운영 현황과 선별진료소 가동 상황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현장을 직접 챙기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도 함께 현장을 찾아 “도내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

고 밝히고 도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회용 마스크 2만개를 경북도에 전달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등에 감염병 선별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담 의료인력을 배치했다. 음압 텐트, 방역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현재 45개소까지 확대 설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1일부터는 도 및 23개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마다 늘 최전선에서 애써주고 있어 든든하다”며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최선의 예방책은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지키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이니 도민 스스로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다시 한번 더 당부했다.

도지사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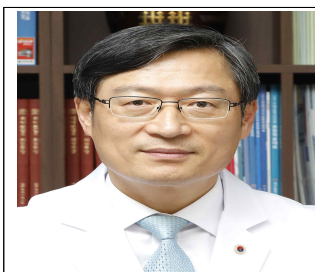
방문개요

- 일 시 : 2. 6.(목) 11:00
- 장 소 : 포항의료원(선별진료소 + 음압병상)
- 방 문 자 : 도지사, 포항의료원장, 경북의사회장 외
- 내 용 : 선별진료소 근무자 격려 및 음압시설 점검 등
※ 경북의사회 1회용 마스크 2만개 전달

방문일정

시간별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포항의료원 <u>선별진료소 방문</u>	근무자 격려
11:10 ~ 11:20 (10)	○ <u>음압격리병상</u> 운영실태 확인	이순(담당의사) 이정미(간호사)
11:20 ~ 11:30 (10)	○ 경북의사회 <u>마스크 전달</u> - 의사회장 → 도지사	
11:30 ~ 11:50 (20)	○ 감염병 대응 현장 <u>간담회</u> - 회장, 의료원장, 근무자 등 10명	

경북의사회 방문 회장단



장유석(회장)
외과의원원장(경산)



이동석(부회장)
동국대경주병원장



이우석(부회장)
포항영동안과원장



김동석(부회장)
포항사랑요양병원장

※ 2. 6일(목) 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서 태 원		
			팀 장	구자희	주무관	신우호
		연 락 처	054-880-3182			

이철우 도지사, CV 대책 관광현장의 목소리 귀기울여

- 6일 경주황리단길 현장소통, 관광업계 종사자 현장간담회 가져 -
- 주요 관광지 손세정제 배치 등 방역 최대 노력.. 관광청정지역 유지 -
- 지역 어려움.. 지방 한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중앙정부 건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관광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1번지 경주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에서 관광업계 대표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와 이철우 도지사는 황리단길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리삼릉공원(기념품), 노상 천막가게(여성의류), 황리단 신라명가(식음: 경주빵) 등 관광업체들을 찾았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액 추이와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황리단길내 황남관으로 옮겨 코로나 사태 대응마련 관련 종사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지역은 아직까지 23개 전시군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로 관광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도내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는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내 주요관광지 호텔의 예약취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수는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은 개별 관광객 보다 단체 관광객 취소율이 높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숙박율 40%, 2016년 경주지진 당시 숙박율은 30%로 감소한바 있다.

올해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해 대구의 세련된 도시문화와 경북의 품격있는 전통문화,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과도한 불안해소와 사태진정 등 관광업계 안정화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바이러스 진정 후 관광의 해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도차원의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 손세정제 배치, 예방수칙, 신고요령 안내 ▲버스타고 대구경북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도내 축제의 연기 또는 취소 ▲코로나 예방대응에 예비비 40억원을 긴급 투입해 열화상카메라(85대), 방역물품(4종) 등을 주요관광지에 설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으로 업계의 자금 숨통을 터주고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지역 관광업계 상황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방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일정을 함께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 납부기간 연장 또는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시적 실시(10%→0%)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자금 특별 융자 지원 ▲손세정제 구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경북도의 당면현안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건의했다. 이 외에도 신라왕경의 실질적 복원을 위해 추진단 확대와 복원사업의 독립적 예산과 방사선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을 특별히 건의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홍남기 부총리께 건의했다. 우리 경북은 청정관광 유지를 위해 도민과 전공직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우리 지역을 청정관광지역으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관광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주엑스포를 방문해 열감지 화상 카메라 작동 현황 등 감염병 대처현장을 점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작성 자	과 장	전 재 업		
			팀 장	박문관	주무관	박종운
		연 락 처	054-880-3282			

경북도, '전국체전 새로운 100년의 출발' 신호탄 쏘다

- 행정부지사 준비상황 보고회 주재, 56개 실·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
- 과학·문화를 융합한 경북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체전준비에 전 행정력 집중 -
-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모색 -

경상북도는 6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지난 1월 취임한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체육회·교육청·경찰청 관계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양대 체전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추진경과, 준비상황 보고 및 주요쟁점별 대처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안전, 식품위생, 응급의료, 숙박, 교통, 홍보 등 분야별 협업과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첨단과학기술과 문화·관광 자원을 전국체전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국체전 추진방향인 과학체전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중 '5G 청년한마당 부스', '청년창업 기업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경북의 4차 산업 위상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50주년', '6·25 70주년' 등 올해 계획된 대규모 행사와 문화체전을 연계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전염병 방역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수단 건강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전국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8일부터 구미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은 1995년 제76회 포항, 2006년 제87회 김천에 이어 14년만에 경북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로 ‘대한체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역사성과 함께 ‘경북 재도약의 대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국체전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D-101일, D-30일 행사와 전국체전 공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 체육사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경북의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과 과학·문화를 융합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국체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역대 가장 성공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했다.

참고 1

회의개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차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 ◆ 대한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협업을 통해 철저히 준비코자 함

I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6.(목) 10:00 ~ 11:50
- 장 소 : 화백당 (안민관 401호)
- 주 재 : 행정부지사
- 참석대상 : 56명 (도 50, 양 체육회 2, 관계기관 4)
 - 도 부서장, 양 체육회, 도 교육청 · 경찰청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2020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
 - 실시부서별 전국체전 준비상황 및 예상쟁점 토론

II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체전기획팀장)
10:01~10:04	3	■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영상 시청	
10:04~10:07	3	■ 인사말씀	행정부지사
10:07~11:47	100	■ 실시부서별 준비상황 보고(실시부별 편성순서)	전국체전기획단장, 각 부서장
11:47~11:50	3	■ 마무리 말씀	행정부지사

참고 2**제101회 전국체전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 개최시기 : 2020. 10. 8. ~ 10. 14. (7일간)
- 개최장소 : 경상북도 12개 시·군 일원 (주 개최지 구미시)
- 참가규모 : 30,000여명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체육회
- 경기종목 : 47개 (정식 46, 시범 1)

구 분		종 목 명
정 식 종 목 (46)	기록종목(21)	골프, 궁도, 근대5종, 댄스스포츠, 롤리, 볼링, 사격, 산악,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육상, 자전거,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편수영
	단체종목(8)	농구, 럭비, 배구, 세팍타크로, 야구소프트볼, 축구, 하키, 핸드볼
	개인단체(9)	검도, 바둑, 배드민턴, 스쿼시, 에어로빅, 정구, 탁구, 테니스, 펜싱
	개인경기(8)	당구, 레슬링, 복싱, 씨름, 우슈, 유도, 태권도, 택견
시범종목(1)		보디빌딩

□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개최시기 : 2020. 10. 21. ~ 10. 26. (6일간)
- 개최장소 : 경상북도 11개 시·군 일원 (주 개최지 구미시)
- 참가규모 : 8,500여명 (선수 6,000, 임원 및 보호자 2,500)
- 주최/주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 경기종목 : 30개 (정식 26, 시범 4)

구 분	종 목 명
선수부 (27종목)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휠체어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휠체어테니스, 골프, 펜싱, 카누(전시), 트라이애슬론(전시)
동호인부 (18종목)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휠체어럭비, 론볼, 배드민턴, 볼링, 사이클,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골프, 슐런(전시), 쇼다운(전시)

※ 2015년부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同年 同所 개최

참고 3

대회 상징물

□ 구 호 :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

□ 엠블럼

	
<p>▶  는 체전의 불꽃과 경북의 4대정신(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을,  는 경북과 구미의 영문이니셜'G'를,  는 젊음과 변화의 상징 녹색과 더불어 청정자연의 백두대간을,  는 환동해 푸른파도를,  는 경북의 젖줄 낙동강을 의미</p> <p>▶ 전체적인 형태는 밝은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경상북도의 모습을 형상화</p>	

□ 마스코트

	
<p>▶ '새바람 행복경북'을 모티브로 '체전에 신선한 경북의 새바람을 일으켜 선수단 뿐 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의미</p> <p>▶ 햇불의 4갈래 불꽃은 경북의 4대 정신을 표현, 햇불 속 101은 대한체육 새로운 백년을 기원하는 전국체전 101회 의미</p> <p>▶ 마스코트 이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새롬이 : '새로운 경상북도'의 의미를 친근한 마스코트 이미지로 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음과 변화, 새로움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표현 ② 행복이 : '행복'의 의미를 마스코트에 친근하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전을 통해 전 국민 행복 가득하길 기원하는 경북의 강한 열정을 붉은 하트로 표현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 성 자	과 장	정 진 환		
			팀 장	이치현	담당자	김언희
		연 락 처	054-880-2827			

이철우 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현장 직접 챙겨

- 6일 포항의료원을 시작으로 경주, 구미, 문경, 경산 등 5개시군 현장점검 -
- 의료, 경제, 교통, 교육현장, 관광업계 방역현장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

경상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료, 경제, 교통, 교육현장, 관광업계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역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최일선 방역현장인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경북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근무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상북도는 포항의료원을 음압격리병상이 구비된 도거점 선별 진료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역 관광업계 현장을 챙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소재 기념품 및 경주빵 판매장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광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설 연휴때만 5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을 방문해 정문입구에 설치된 열감지 화상 카메라 작동 현황을 점검했다.

2월 10일에는 경제현장 점검에 나선다.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미에 위치한 중국 전자부품 수출업체와 문경에 소재하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한다.

2월 12일에는 중국유학생 등 도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대학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진다. 도내 대중교통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산시 소재 버스차고지 및 택시업계도 방문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감염병 발생초기부터 철저한 방역 대처로 현재까지 경북도에서는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는 상황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 이러한 방역 대처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며

“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행정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도지사가 수시로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가 방역대처 상황을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2월에 예정된 대부분의 대내외 일정을 취소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20. 2. 6(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작 성 자	과 장	박 성 근		
			팀 장	임채완	주무관	한상엽
		연 락 처	054-880-2653			

「경북행복경제정책회의」 출범.. 첫주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 경북도 주도 대경연, 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 구성, 4개 협력기관 참여 -
-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매월 정례회의 개최 -
- 6일 첫 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한 비상경제대책 논의 -

경상북도는 6일 구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북 행복경제 정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지역의 경제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행복경제정책회의는 지역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 행복경제정책회의는 경북도가 주도하고,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경제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대구은행, 한국무역협회 대국경북지역본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3주차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경기지수,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고용 등 지역 경제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과 국가산업동향, 국제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한다. 국책사업이나 예타사업,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책도 모색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 간 협업체제를 유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역할도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복경제정책회의가 경북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첫 회의 제1주제로 이에 대응한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미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경제 T/F’ 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경제부지사가 단장, 일자리경제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일자리총괄, 기업지원, 소상공인, 수출지원, 교통관리 등 모두 5개팀으로 구성된 T/F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경제분야 긴급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경제 T/F’ 를 비상경제대책본부 체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자동차부품업체의 부품 공급망 차질로 인한 생산라인 2차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고, 기관별로 대책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연구원은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2020년 대구경북의 경제전망을 제공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 동향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과 함께 기업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기업실태 조사와 긴급 지역 경제동향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020년 대구 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및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대구은행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도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의 경제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마련됐다”며 “시급한 신종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책회의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가칭) 「경북 행복경제 정책회의」 구성 · 운영(안)

- ❖ 도(道)와 경제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의 분석·조정·총괄 및 대응방안 강구(⇒경북경제 실무 컨트롤타워)

■ 회의개요

○ (구성) 7개 기관*

- * 도, 대경연, 경제진흥원, TP, 한국은행, 대구은행, 무역협회
- ※ 협력기관(4) : 고용노동청, 대구본부세관, 중기진흥공단, 소상공진흥공단

○ (운영) 매월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수시회의)

- (개최일) 매월 3주차 수요일 ※ 첫회의 : 2. 6(목)
- (참석) 도 일자리경제실장, 7개 기관 경제실무담당부서장
- (배석) 일자리경제노동과장(간사), 중소벤처기업과장·민생경제과장, 빅데이터담당관
- ※ 수시회의(현안발생 시) : 협력기관 포함 개최

○ (주관) 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

< 중점 협의·조정 사항 >

- 道경제 기본동향, 국내외 경제동향, 주요정책·현안 등
 - (경북경제 기본동향) 경기지수,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고용...
 - (국내외 경제동향) 정부정책 및 국가산업동향, 국제경제 관련이슈
 - (주요정책·현안) 국책사업, 예타사업, 국비공모사업 등

■ 활용계획

- 회의결과 주요사항(관련 부서 및 시군 공유) ⇒ 경제정책에 반영
- 경제동향 및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정책브리핑(필요시)

■ 협의사항

- 지역경제 분석 · 조정 · 총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경제 대책 - 「경북 행복경제 정책회의」 개최

- ❖ 도(道)와 경제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의 분석·조정·총괄 및 대응방안 협의(⇒경북경제 실무 컨트롤타워)
- ❖ 신종 CV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협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6.(목) 15:30
- 장 소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3층 회의실
- 참 석 : 20명 정도(道, 주요경제기관 실무담당부서장 등)
 - 道(**경제부지사**, 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 ※ 배석 : 중소벤처기업과장, 민생경제과장, 빅데이터담당관
 - 대경연, 경제진흥원 경북TP, 한국은행, 대구은행, 무역협회
 - 고용노동청, 대구본부세관, 중기진흥공단, 소상공진흥공단 등

■ 주요내용

- 2020년 지역경제현황 및 동향, 주요정책·현안 발표
 - 각 기관별 분석한 지역경제동향 특이사항 등
 - ⇒ 지역경제 분석·조정·총괄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 협의
- 신종 CV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변수 및 대응방향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15:35	5'	▶ 개회,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15:35~15:40	5'	▶ 행복경제 정책회의 구성취지 설명 ▶ 신종 CV 확산 방지 경북도 대응	일자리경제실장
15:40~16:00	20'	▶ 기관별 지역경제동향 및 현안 발표 ▶ 신종CV 관련 기관별 현안 발표	주요 경제기관 관계관
16:00~16:30	30'	▶ 관계기관 역할 논의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작 성 자	실 장	김 승 하		
			팀 장	권택전	주무관	최종석
		연 락 처	054-880-7512			

이철우 도지사, 동부청사에서 간부회의 가져

- 환동해지역본부 방문 현안사항 청취 · 직원 격려 -
- 동해안전락 및 해양수산분야 신규시책 추진 및 국비확보 노력 당부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오전 경상북도 동부청사(포항 용흥동)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동해안에서 소득 5만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환동해지역본부 간부공무원과 독도재단 사무총장,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해안전락 및 해양 신산업, 원자력, 에너지,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지사는 해안주변 경관개선, 해양시설 정비, 수산물 가공 등 동해안 명품 해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 전입한 직원이 잘 적응 해 주길 바라며 “바다의 무궁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외 및 타시도 벤치마킹 등 공무원 각자가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21세기 해양시대 선점을 위하여 동해안이 가진 장점을 특화하여 미래 환동해지역의 먹거리를 위한 해양 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계획한 사업들이 올 한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장	홍석표		
			팀장	강은희	주무관	남현대
		연락처	054-880-2421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본격 추진 막올라

- 스마트산단 사업단장에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취임 -
- 스마트 산단을 넘어 지역 산단과 연계한 산단 대개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구미 국가산업단지 혁신적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이 사업단 구성을 모두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장 공개채용에서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돼 취임했다. 이로써 운영인력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승희 사업단장은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 산학협력단장,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생산성본부(kpc)의 혁신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노후화, 대기업 이탈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단 혁신을 위해 정부의 ‘20년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난해 9월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수차례 협의해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및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구성했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은 4년의 사업기간 동안 수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조만간 ‘구미스마트산단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공모시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지역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 한다. 생산성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신바람 나게 일하며, 삶을 향유하는 사람중심의 행복산단을 구축한다.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또한 6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경상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한국 폴리텍대 등 지역의 관련 혁신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과 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모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중 우선적을 추진해야 할 사업 로드맵 구축을 비롯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투자 방안 ▲범부처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산단 대개조 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다양한 주문과 논의가 있었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미 스마트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산단을 분석해 구미 스마트산단을 넘어 경북의 산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산단 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장

성 명 : 이 승 희 (李 承 熹)

생년월일 : 1962년생(만57세)

학 력

- 1978 ~ 1981 대전고등학교
- 1982 ~ 1986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986 ~ 1988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88 ~ 1993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 1994 ~ 2004 광주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4 ~ 2020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12 ~ 2014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창업교육센터장
- 2013 ~ 2015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산학융합사업단장
- 2015 ~ 2017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장
- 2009 ~ 2020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수석부회장
- 2014 ~ 2020 사)대한산업경영학회 수석부회장
- 2020 ~ 현재 경북구미 스마트산단사업단장

상 훈

- 2005 산업자원부 장관상(디지털정책대상(제6927호))
- 2019 행정안전부 대통령 근정포장(제117090호)

「구미 스마트산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20년 스마트산단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구미 산단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및 관련 인프라 조성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

■ 개 요

- 일시/장소 : 2020. 2. 6.(목) 10:00 ~ /구미시청 상황실(3층)
- 보 고 자 : 김윤명 비엔아이 대표(연구용역 주관사)
- 참 석 : 20여명 정도
 - 경북도 : 과학기술정책과장, 가속기신산업팀장
 - 구미시(2명) : 경제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 관련 부서장, 팀장 배석
 -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2명) : 사업단장, 부단장
 - 기 타(7명) : 금오공대, 경북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ERI 등
- 내 용
 -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 최종 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스마트산단 핵심사업 및 종합추진전략 수립 방향 등 논의

용 역 개 요

- ▶ 용역기간 : 2019. 5월 ~ 2020. 2월(9개월)
- ▶ 용역기관 : 비엔아이(용역비 : 195,000천원)
- ▶ 활용방안 : ‘20년 스마트산단 국가 공모사업 신청 기본계획서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개회	구미시 기업지원팀장
10:05 ~ 10:15	10'	인사말씀	道 과학기술정책과장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장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10:15 ~ 10:20	5'	경과보고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10:20 ~ 10:40	20'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	비엔아이 대표
10:40 ~ 11:20	40'	질의응답 및 전문가 토론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11:20 ~ 11:30	10'	폐회 및 사진촬영	道 과학기술정책과장(총평)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총평)
11:30 ~		오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성 자	과 장	박 노 선		
			담당	한영옥	주무관	임홍식
		연 락 처	054-880-2733			

경북도, 중소기업 수출에 새바람 일으킨다...

- 2020 새바람통상전략 발표, 수출 400억 달러 목표 -
- 수출유관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 및 통상정책 설명회 병행 -

경상북도는 6일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기업인, 수출지원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수출 400억 달러 회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2020 경북도 수출지원 정책설명회를 통해 2020 새바람통상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금년도 수출목표를 지난 해 보다 13억 달러가 증가한 수출 4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전략 및 신흥시장 공략 확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지원 확대 ▲대기업, 중앙부처 통상사업 협업 강화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전문컨설팅사업 ▲시·군 통상파트너링사업 ▲해외인증사업지원 ▲아마존셀러양성 등 통상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국내·외 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 등 신규 사업 위주의 주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1% 정도 증가한 7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경북도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주력시장(60→55%)위주의 지원을 개선해 전략시장(21→25%)과 신흥시장(10→15%)의 수출비중을 늘린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29.5%→30%)과 수출금액(111억불→120억불)도 확대할 예정이다.

총수출 400억불 (중소기업 120억불)

27개 지원사업, 76억원 규모



우선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GM사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일본수출규제 대응 수입다변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부품소재 중소기업과 글로벌 해외기업과의 전문화된 맞춤형 상담을 주선했고 동시에 소재부품기업의 탈일본화 및 독일 등 해외협력 기업의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통합사절단 및 전시회, 대형수출상담회, 신북방·남방 비즈니스 협력 등 각종 사업에 도내 기업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13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온라인마케팅사업도 18개국으로 확대한다. 아마존 등 글로벌 전문셀러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온라인시장 확대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컨설팅을 위해 해외 거점지역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해외사무소 파견 통상주재관을 활용해 기업과 매칭,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강화사업, 1사 또는 2~4개사 소규모 통상사절단 파견사업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출유망기업 일자리플러스원(+1)사업으로 1사 1인 채용을 지원해 경북형 통상일자리를 확대한다. 무역아카데미, 청년인력 해외인턴, 청년무역사관 학교, 지역대학 무역전문가양성사업 등을 통한 통상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시·군 통상파트너링사업을 통해 시·군 전략품목 발굴 및 신규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 예산이 부족한 시·군을 연계한 통합수출지원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전략수출품목의 170여개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20억 할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할랄 컨설팅 및 인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품소재기업의 다양한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500개사로 구성된 경북수출기업협회의 내실화를 다지고 회원사를 1천개사로 늘린다. 수출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12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월드옥타(World OKTA), 세계한상, 해외자문위원(100명), 해외사무소를 통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경상북도와 수출협력을 추진 중인 12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가졌다. 유관기관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피해기업 수출지원 마케팅, 도-수출지원기관 협력사업, 중국시장외 대체시장 발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미·중, 미·EU 무역전쟁, 한·일 통상마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신지역무역협정 확산, WTO위기, 美 대선 등을 해 무역환경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도내 기업체를 비롯하여 수출마케팅 지원기관, 해외협력네트워크 및 경북도가 힘을 합쳐 어려운 파고를 넘어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녹풍다경(綠風多慶)을 통한 경북도 수출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 만들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엄태인	주무관	정남권	
		연 락 처	054-880-3591				

경북도,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한다!

- 6일 도청에서 2020년 경북도 산림시책회의 개최, 산림부서장 등 50여명 참석 -
-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복지 등, 금년도 3,260억원 투입 -

경상북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산림시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계로 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선제적인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23개 시·군의 협력방안과 당면 현안사항인 산림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약 3,260억원을 투입해 임산업 활력제고를 통한 산림 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으로 도민 안전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벌채 및 임목생산, 목재가공·유통, 소비를 통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조림(231억) ▲숲가꾸기(513억) ▲임도사업(208억)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20억) ▲청정임산물이용증진(175억) ▲백두대간주민지원(20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의 산림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산림복지서

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지방정원 등을 조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15억) ▲자연휴양림(68억) ▲수목원조성(47억) ▲지자체도시숲(172억) ▲산림레포츠시설(37억) ▲지방정원(60억) ▲산림복지단지조성(40억) ▲미세먼지차단숲(75억) ▲도시바람길숲(100억) ▲숲길조성(89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방지(559억) ▲사방사업(273억) ▲병해충방제(316억) ▲백두대간생태복원(25억) 사업 추진으로 현장중심의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간다.

특히 1시군 1상징 특화숲조성에 500억원(5년간)을 투입해 산림 일자리를 창출한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과 국립 김천 숲속야영장 등 숲속야영장 3개소를 조성해 산림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위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활용 미세먼지저감조림 380ha, 도시바람길숲 1개소, 미세먼지 차단숲 5개소를 조성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2020년 도정 방향인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촌’에 발맞추어 숲과 산림을 잘 가꾸어 소득을 올리고, 도민이 숲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경북이 되도록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도와 시군이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임산물 생산 2조원, 임가소득 5천만원, 산림일자리 5만에 달성-

2020년 산림시책 회의 개최

◇ 도내 주요 산림관계관이 참여하는 산림시책회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및 향후 산림정책 발전방안 모색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2. 6.(목), 14:00 ~ 16:00
- 장 소 : 경북도청 회의실
- 참여인원 : 45명 정도 (도, 시·군 산림관계관 등)
 - 도 본청(10명) : 국장, 과장(2), 담당사무관, 직원 등
 - 산림환경연구원(5명) : 원장, 과장, 지원장, 시방기술교육센터장 등
 - 산림자원개발원(5명) : 원장, 과장, 수목원관리소장 등
 - 시·군(25) : 시·군 담당과장·팀장 - 시·군별 2명(울릉 필참)
- 주요내용
 - 2020년 주요 산림시책 설명(협조 및 당부)
 - 시군 특수시책 발표 및 현안사항 토론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4:10~14:15	5'	▶ 인사말씀	환경산림자원국 국 장
14:15~15:05	50'	▶ 2020 산림시책 소개 (협조 및 당부)	소 관 팀 장
14:05~15:35	30'	▶ 시군 특수시책 발표	칠곡, 영양, 김천
15:35~15:55	20'	▶ 건의, 현안사항 토론 등	산림자원과장 산림산업관광과장
15:55~16:00	5'	▶ 마무리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 자	과 장	서 정 찬		
			팀 장	서한교	주무관	이홍작
		연 락 처	054-880-2152			

경북도, 지방재정 전략회의 통해 경기활성화 모색

- 신속집행, 신규국비 발굴 등 도·시군 합동 토론 등 회의 개최 -

경북도는 도 본청 및 사업소, 23개 시군과 함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신규 국비 발굴 등을 위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6일 문경소재 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23개 시·군 기획실장, 도 및 시군 예산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18년부터 지속적인 대내외 경제 악화와 함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침체된 경기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의 트리거 역할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액 대비 61%(행안부보다 1% 상향조정)로 정했다. 도 전체 대상액 19조 4,379억원 중 12조 743억원을 목표로 상반기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해 일일 집행실적 점검 및 수시 대책 회의, 실·국장 현장점검 등을 집중 추진, 신속집행을 독려·지원한다.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 걸림돌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토지보상T/F팀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집행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국비확보 8조 8,024억원의 성과를 돌아보며, 21년에도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시군에서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제안·토론을 거쳐, 일자리 창출, 과학·바이오 신산업, 부자 농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과 함께 공동 협력하여 추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 신규 사업들이 부처 중기사업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기재부, 국회 등 해당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동향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가예산 발굴·확보에 노력기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보통교부세 감액대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신청 대비, 보조금 부정수급·예산낭비방지 합동평가 대비,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신속집행, 국비 발굴 등 도민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재정 현안사항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2020년도 도-시군 재정전략 회의 개최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6(목) ~ 2. 7(금) (1박2일)
- 장 소 : 서울대병원 인재원 *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1길 77
- 참 석 : 100명 정도(도 15명, 시군 85명) *도·시군 기획실장 등
*신속집행 분야 : 180명(예산부서 100명, 사업부서 50, 공기업 30)
- 주요내용 : '20년도 신속집행 및 국비확보 추진전략 협의 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2.6(목)	13:00~13:30	30'	등록	
	13:30~13:40	10'	개회 및 인사말씀	국민의례
	13:40~15:10	30' 60'	【제1주제 : 2020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 주제특강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행안부 이방무 재정정책과장) · '20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도 예산담당) · '20년 경상북도 신속집행 추진계획(도 예산담당관)	
	15:10~15:30	20'	Break Time	
	15:30~18:00	150'	【제2주제 :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 '20년 시군별 신속집행 및 국비확보 전략(23개 시군 기획실장) · '20년 시군별 지방재정 현안사업 건의 등	
2.7(금)	09:00~11:00	120'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사례 발표	
	11:00~12:30	90'	(특강)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	
	12:30~13:30	60'	중식	
	13:30~15:00	90'	시군 현안사항 및 지방재정 제도 개선 토론	
	15:00		폐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 2. 6(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 성 자	과 장	이 진 우		
			팀 장	민병관	주무관	류한수
		연 락 처	054-880-6212			

경북소방본부,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도내 행사장 안전사고 신속대응 -**


경북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찬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4,300명, 의용소방대원 11,000여 명을 동원해 도내 지역별 달집태우기 행사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올해 도내 정월대보름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지역별로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 계획을 수시로 파악해 혹시나 있을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삼림 인접 지역이나 문화재 인근에서의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는 사전 신고를 유도하여 자체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화기취급 요인이 있는 장소에는 방화 대비 소방순찰 및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의 작은 불꽃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경북도서관			
		작성 자	관 장	김진창		
			팀 장	신광현	주무관	김지혜
		연락처	054-650-3924			

경북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

- 10개 강좌,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독서문화진흥 기반 마련 -
- 2월 11일까지 접수, 이메일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

경북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3일 개관 이후 2020년을 대표도서관 원년으로 삼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북대표도서관 구현’을 모토로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화 하여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책을 기반으로 강연 및 공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북(Book)·가(歌)·락(樂) 문화아카데미, 북 콘서트, 어린이 독서캠프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주민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개발·운영한다.

올해 상반기(3월 ~ 6월) 첫 정규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와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총 10개의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강사에게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경험을 가진 강사를 공개 모집해 도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1일까지이며, 이메일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은 “도민이 도서관에서 정보를 얻고 문화를 즐기자는 염원을 담아 탄생한 경북대표도서관의 첫 정규프로그램인 만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2020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상반기 강사모집 계획

□ 모집개요

- 모집과정 : 10개강좌
- 강의기간 : 2020. 3 ~ 6월
- 강의일정 : 2가지 중 선택
 - 주 1회, 진행횟수 총 8회, 1일 1 ~ 2시간 진행
 - 월 2회, 진행횟수 총 8회, 1일 1 ~ 2시간 진행
- 모집분야


프 로 그 램 (가제)	대 상	대상인원	모집인원	비고
계 (총 10개)			10명	
부 모 와 함 께 하 는 책 놀 이	유아(2~3세)	15	1	평일
생 각 이 자 라 나 는 책 놀 이	유아(4~5세)	15	1	평일
다 문 화 책 놀 이 프 로 그 램	어린이(5~7세)	15	1	평일
영 어 로 읽 는 그 림 책	초등학생	15	1	평일/주말
사 고 력 쑥쑥! 독 서 토 론 수 업	초등학생	15	1	평일/주말
책 과 함 께 하 는 과 학 수 업	초등학생	15	1	평일/주말
하 브 루 타 슬 로 리 딩	초등학생	15	1	평일/주말
독 서 치 료	성인	20	1	평일
성 인 독 서 토 론	성인	20	1	평일
시 니 어 를 위 한 독 서	시니어	20	1	평일

※프로그램 이름은 가제이며, 독서와 결합한 활동에 한해 자유롭게 지원가능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별도 심사위원 구성 후 평가
- 강사수당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따름

□ 향후계획

- 모집공고 : 2020. 1. 28.(화) ~ 2. 11.(화) / 15일간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2020. 2월중
- 합격자 발표 : 2020. 2. 24.(월)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6(목)】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			
		작성 자	소 장	성 세 현		
			팀 장	김산영	주무관	김성태
		연 락 처	054-482-0031			

경북농업기술원 구미시 장미원 조성 및 녹화사업에 힘 보태

- 구미화훼연구소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화훼산업 발전 상생의 길 모색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는 6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의 장미원 조성 및 도시녹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구미시는 최근 반도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포함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지의 환경 개선 및 생태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장미를 테마로 하는 도심지 장미원을 조성, 벽면녹화사업 등 도시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도시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과 농업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산업도시로 거듭나려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 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는 자체 육성 품종 및 재배 관련 기술을 이용해 장미원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녹화 기술 및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미시 녹화사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자체 육성한 장미 품종과 인적 자원을 이용해 구미시의 장미원 조성 사업과 도시녹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계기로 경북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구미시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간 업무협약 계획

□ 목 적

- 경북도원 구미화훼연구소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상호 업무협력을 통하여 구미시의 장미원 조성 및 도시녹화 기술 이전 등 농업·농촌·녹지 발전에 기여함.

□ 협약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 2. 6(목), 11:00~12:00, 구미화훼연구소 세미나실
- 참석자 : 10명
 - (구미화훼연구소) 성세현 소장 등 관계자 5명
 -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 등 관계자 5명
- 협약체결 주요 내용
 - 구미시 장미원 조성 사업에 적극 지원(구미화훼연구소 육성품종)
 - 경북도원 구미화훼연구소의 육성 품종 및 재배관련 기술 지원
 - 구미시 도시녹화 관련 경북도원 개발기술의 보급·지원
 - 기관의 실물 인프라를 이용한 상호 교육 및 행정지원
 - 각 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 주요 일정

진행 내용	시 간	장 소
● 화훼 연구소 내방		소장실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1:00	세미나실
● 협약서 주요내용 보고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 기념촬영		